

국감 브리핑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국회의원

### 간호수가 현실화 ... 간호사 이직방지 대책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했다.

간호사 출신인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간호 및 보건복지 관련 현안에 대해 폭넓게 질의했다. 특히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간호수가 현실화와 간호사 이직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윤종필 의원은 "간호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간호인력 부족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간호사들이 이직하지 않고 오래 일하고, 유휴간호사들이 현장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인력 양성과 수급을 위해서는 미국·일본과 같은 간호인력 전담부서가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돼야 한다"면서 "간호인력 확보 통합TF와 같은 협력조직을 구성해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간호인력 확보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보건 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지원할 제도와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필 의원은 "환자안전과 밀접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윤종필 국회의원이 10월 4일 열린 견보공단 및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위해 간호관리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간호관리료 처당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면서 "인력선정기준을 현행 병상수에서 일원환자수 대비 간호사 수로 바꾸고, 지방중소 병원에 대한 간호수가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종필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사 인력기준이 의료법 시행규칙 임법예고 당시에는 연평균 1일 일원환자수 기준이었는데 병상수 기준으로 바뀌어 공포됐고, 시설기준에 포함됐던 전통집대 역시 삭제됐

다"면서 "관련 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고 질타했다.

윤종필 의원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보건 의료시스템을 확보해 놓아야 하며, 복지분야에서도 통일 이후 상황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국정감사를 마친 윤종필 의원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한다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종필 의원은 올해 4월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 돼 국회에 입성했다. 여성장관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교장을 지냈으며, 대한간호협회 감사 및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김숙현 기자 shkim@koreanurse.or.kr

### 보건복지위 국감 종료

### 간호사 처우개선 ... 간호관리료 개선방안 촉구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양승조)가 9월 26일~10월 15일 실시한 올해 국감에서는 간호사 부족 문제 등 간호현안들이 다뤄졌다.

특히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간호수가를 현실화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9월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관리료가 임원료에 포함돼

있어 독립적인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할 수 없고,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선 간호사 인건비가 간호관리료 및 간호수가에 반영되는 건강보험지불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14~15일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암묵적 동의에 의해 제도화되지 않은 PA를 수년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일제 점에 다다랐다"면서 "PA 실태를

파악하고, 합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간호관리료 처당제의 인력선정기준을 허가병상수에서 일원환자수(가동병상)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보건소 방문간호사는 통합건강진진 사업을 수행하며 빈곤·위기가정을 방문해 국민건강을 돌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숙련된 전담인력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들의 일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해결책을 촉구했다.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기사 간호사신문 10월 13일자 1면 참조.

김숙현 기자 shkim@

### 미디어 리뷰

### "간호사 이직 방지 주력해야"

김옥수 간호협회장 칼럼 동아일보 실려

"간호학과 신·증설을 통해 간호사 공급을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 대신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사진)의 칼럼 '간호사 많은데 실무인력 부족하다'가 동아일보 10월 11일자 오피니언 지면에 실렸다.

칼럼을 통해 김옥수 회장은 "정부는 최근까지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 아래 간호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확대 정책을 펼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간호학과 수는 2006년 127개에서 2015년 203개로, 입학자 수는 편입 등 정원 외를 포함하여 2006년 1만 1147명에서 2015년 2만3642명으로 112% 증가했다"면서 "새로 유입된 간호사 면허자 수를 살펴보면 2006년 1만137명에서 2016년에는 1만7505명으로 약 73%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옥수 회장은 "지역별 간호사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며, 특히 지방병원 및 중소병원을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지방의 중소병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와 복지 등의 이유로 간호사 구인난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은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법을 제정하고 재정 지원을



인력배치법' 제정 및 일본의 '간호사 등 인재확보 촉진법' 등이 대표적 예"라고 밝혔다.

김옥수 회장은 "우리나라는 간호인력 문제의 핵심을 간호사 공급으로 보고, 전체 간호사의 수를 늘리는 식의 접근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선진국처럼 간호사의 이직 방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 나아가 간호수가 확대를 간호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지불체계 구축, 종합적 장기적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보건복지부 내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하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이 성과를 보일 때 대형병원으로의 인력 쏠림 현상을 막고 평균 5.4년에 불과한 근무 연수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옥수 회장은 "이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간호학과 신·증설을 통한 무책임한 공급 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면서 "어떻게 하면 간호사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칼럼을 끝맺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장윤정 듀크대 부교수, 미국간호교육연맹 'ANEF' 선정

미국 듀크대 간호대학 장윤정(Jennie De Gagne) 부교수가 미국간호교육연맹(NLN·National League for Nursing)이 수여하는 Academy of Nursing Education Fellow(ANEF)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장윤정 부교수(가운데)가 앤 바비어(Anne Bavier) NLN 회장(왼쪽), 비버리 말론(Beverly Malone) NLN CEO(오른쪽)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NLN은 간호교육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고 중대한 공헌을 한 간호교육자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ANEF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모두 18명이 뽑혔으며, 이중 장윤정 부교수를 비롯해 2명이 동양인 교수로는 처음으로 선정됐다. 수여식은 지난 9월 23일 열린 NLN Honors Convocation에서 진행됐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NLN은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실시하는 등 미국 간호교육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간호교육자와 간호리더들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장윤정 부교수는 "ANEF를 수여받은 최초의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긍심과 책임감을 느끼며, 간호교육계의 리더로서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NLN이 부여하는 사명에 걸맞게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간호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비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부교수는 1989년 이화여대 간호대학을 졸업했으며, 90년대 미국간호사로 이민 가서 실무를 병행하며 건강심리학 석사학위(MS)와 간호교육학 석사학위(MSN)를 받았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교육공학 박사학위(PhD), 듀크대에서 간호실무 박사학위(DNP)를 취득했다. 노스캐롤라이나간호협회 초대회장을 지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통일시대, 간호체계 통합 방안 토론회

- 일 시 : 2016. 10. 24. (월) 09:00~12: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통일간호포럼, 대한간호협회
- 프로그램
  - 발제 1 - 분단 70년, 통일을 두려워하지 말자
  - 발제 2 - 통일간호, 한국의 미래
  -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미국마취간호사회 학회 열려 ... 최신 동향 교류

미국마취간호사회(AANA·American Association of Nurse Anesthetist) 학회가 9월 9~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정계선 마취간호사회장(세계마취간호사회 이사)이 초청받아 학회에 참석했다.

학회에서는 마취간호 교육·연구·실무분야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교류했다. 비정식적인 심혈관 모니터링, 인공호흡기 적용 및 관리 등이 다뤄졌다.

학회 기간 중 정계선 회장은 제키

라울즈 세계마취간호사회(IFNA) 회장과 미팅을 갖고 마취전문간호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윌마 길리스 미국마취간호사회 연구재단 회장으로부터 재단 운영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벤치마킹했다.

미국 마취전문간호사 및 마취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대학원생들을 만나 미국과 한국의 마취간호 실무와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b>간호사신문</b>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체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 서울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s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산 하 단 체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병원간호사회 (02) 2261-1711	보건간호사회 (02) 525-7318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09-6348	보건진료소협회 (02) 2266-7677	보 건 간 호 사 회 (02) 527-3360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마 취 간 호 사 회 (010-3103-0748)	보 험 심 사 간 호 사 회 (02) 2263-1959
인천시 (032) 441-2925	전라남도 (061) 277-2292	산 업 간 호 사 회 (02) 716-9030	가 정 간 호 사 회 (02) 2267-5688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정 신 간 호 사 회 (02) 425-1271	노 인 간 호 사 회 (031) 750-5080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62-6006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경기도 (031) 252-0351	군 진 (042) 878-4580		
강원도 (033) 263-64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편집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유휴간호사 채용** → **현장실무훈련 참가** → **훈련비 지급**

**훈련비 지급**

유휴간호사를 (수습)채용한 병원에 현장실무훈련비 지급

기간	훈련비 지급	지급액
1주	50,000원 X 5일	250,000원
2주	50,000원 X 10일	500,000원
4주	50,000원 X 20일	1,000,000원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예시: 4시간 근무 50% 지급)

환자가 안전하고 국민이 행복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확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권역센터 안내**

서울·강원	☎ 02)2268-2631~3
인천·경기	☎ 032)441-2926
대전·충북·충남	☎ 042)825-0749
대구·경북	☎ 053)756-8487
부산·울산·경남	☎ 051)442-3824~5
광주·전북·전남·제주	☎ 062)222-5025

※필요서류는 홈페이지(www.RNjob.or.kr)에서 다운로드